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미래 비전: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을 중심으로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2018년 6월 12일과 2019년 2월 28일,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미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2차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되었다. 서로에게 추구하는 바와 자신이 세워 놓은 미래 비전이 극도로 상이한 두 국가의 두 차례 만남 뒤에 다시 뿌연 안개 속으로 진입해 버렸다.

안개 속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하노이 회담은 여러 모로 스펙터클한 이벤트가 되기에 충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협상의 진행과 결렬 과정은 이 두 상이한 세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비추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양국 간 관계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주시하게 만들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을 떠나 북한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었다. 북한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자신의 미래 비전의 실현에 불가결하고, 그 비전의 완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출발 지점과 결렬 지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는 2018년 10월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2018년 10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있었고 이때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개시되었다.* 당시 협상의 출발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 선언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출발 지점’이었다. 이후의 전개를 보자면, 미국은 영변 이상(이른바 ‘플러스 알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양자 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바라고 있었다. 만약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제재 일부 완화와 연락사무소 개설로 보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발 지점에서 무언가 변화가 발생한 것은 2019년 2월의 비건의 방북 때였다. 2019년 2월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때 비건이 북한 측과 실무 협의에서 합의한

* 2018년 7월 6일 방북한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 7월 6일은 미국이 6월 15일에 기획을 완료한 중국에 대한 관세전쟁을 실행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4차 방북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 논의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 애초에 판문점에서 실무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으나, 북측이 비건을 평양으로 초대하였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심적인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면 미국은 제재 일부를 완화한다(US would lift some sanctions on North Korea in exchange for a commitment from Kim to stop nuclear-fuel production at a key nuclear facility)”라는 것이었다.* 또한 연락사무소 교환, 평화 선언 체결, 미군 유해 송환 등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출발 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비건의 명백한 실패이자 북한의 대성공일 것이다. 이는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였다. 따라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결렬의 씨앗이 이미 존재했고 이 씨앗은 2월 28일 정상회담에서 알아해 버렸다.

실제로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플러스 알파’ 없이)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것들(2371호, 2375호, 2397호)**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회담에서 트럼프는 ‘영변 + 알파’를 거론하며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회담은 강경파 존 볼턴이 투입되기도 전에 결렬이 된 셈이다. 존 볼턴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의 역할을 한 것이다.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부분적인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것은 얼핏 보아도 국제사회가 가한 가장 핵심적인 제재들이었기에 미국이 보기

* VOX.com, 2019년 2월 26일.(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_board&wr_id=2284.)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언급한 2016~2017년의 제재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었다. 2371호(2017년 8월 5일)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및 신규 노동력의 해외 송출을 금지하고 있고, 2375호(2017년 9월 11일)와 2397호(2017년 12월 22일)는 원유 공급과 정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로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이유는 비건의 실무협상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었다.

에는 당연히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트럼프가 결렬시킨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 전선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민첩함과 결단력을 입증시키는 사건이 되었다. 트럼프는 북한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며 마이클 코언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지워 버릴 수 있었다. 반대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깊은 내상을 안김으로써 2020년 대선에서 활용할 북한 카드를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외무부상 최설희가 언급했듯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은 채로 기차를 타고 쓸쓸히, 그리고 60시간 이상을 걸려서 평양으로 돌아갔다. 탑-다운Top-Down 방식이 가진 장점은 트럼프에게, 단점은 김정은에게 해당되는 것이 되었다.

2. 미국과 북한의 ‘셈법’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미국의 ‘셈법’은 무엇인가. 트럼프의 셈법은 바로 2020년 재선 승리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를 포함해 미국의 어떤 전임 정부도 거두지 못했던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대선에 나서려고 한다. 트럼프는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극대화된 국면에서 의연히 나서서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실현시켰다고 믿고 있다. 2020년까지 트럼프는 지금까지 전임자 중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평양의 정상국가화, 북한의 개혁 개방(베트남화)을 자신이 실현시킴으로써 비교 불가능한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셈법은 2020년까지 대북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

이다.

반면 북한의 ‘셈법’은 보다 장기적이며 조심스럽다. 북한은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전체 기간을 세분화하는,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 목적지는 북한 자체의 미래 비전이다.

김정은 체제의 논리 속에서 보면, 핵을 보유하고 동북아와 글로벌 수준에서 경제적 선진국이자 정치-외교적 전략적 지위를 가진 국가의 건설이다. 이러한 미래 비전에서부터 북한은 역으로 계산해서 전략을 구상한다. 미국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미국은 실패하지 않아야 하고 북한은 단계마다 성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에 영변을 내어주고 다음에는 다른 것을 내어주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자신이 설정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이 설정한 이러한 목적지에 대해서 트럼프는 별 관심이 없다.

3. 트럼프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미래

미국에게 북한은 1950년대에 적국(敵國)으로서 전쟁을 치른 나라였고, 아직도 미국의 젊은이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나라다. 1990년대에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으나 이를 어긴 나라였고, 2002년에 급기야 미국이 이란, 이라크와 “악의 축” 국가의 반열에 올린 나라였다.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에 이 악의 축 국가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트럼프는 2015년 오바마가 성공시켰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으로 국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 북한과는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가졌다. 오바마가 이룬 것을 무화無化하고 오바마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선전하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다.

트럼프가 원하는 북한의 미래는 트럼프의 2020년 대선과만 인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의 정치·외교적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존재로 틀이 짜여야 한다. 북한은 정상국가 냄새를 풍기는 존재로 가다듬어져야 하고, 어떤 트럼프의 전임자도 강제하는 데 실패했던 개혁 개방의 노선에 진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 포장되어 제출되었다. 베트남 모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트럼프는 계속해서 북한에게 “베트남 모델을 통한 경제 부국의 건설”을 언급하였다.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베트남 모델로 가는 여정에서 북한이 이탈하지 않고 그 궤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는 것이다. 목적지 ‘베트남’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 궤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4. 북한의 목적지, 미래 비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할 즈음해서, 북한이 판단하기에 미국은 국력이 쇠퇴해 가고 있었다. 특히 2008년을 전후로 발생한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미국의 국력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았다.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시아 쪽으로 전략적 관심을 이동한다고 보았다. 오

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 그것이다. “현 시기 국제정치의 중심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쇠퇴, 일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라들의 국력 강화 등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힘의 균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위태로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는 인식을 토대로 동북아 전략을 구상하였다. “큰 나라들의 짬에 끼여서 각축전의 무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불리한 위치가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곳을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 포위환을 형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인식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2017년 12월의 이른바 ‘전략적 지위’ 논의와 연결되게 된다.****

△ 지향의 변화

북한의 이와 같은 정세 판단은 북한의 세계 인식에서 중요한 ‘지향’을 만들어 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의 김정일 시대에는 미국은 글로벌 수준에서 단일 패권국가로서 너무나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 『로동신문』 2011년 12월 7일, 「군사적 패권 유지를 노린 무모한 망동」.

** 『조선신보』 2012년 3월 17일,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령도력-3」.

*** 『로동신문』, 2011년 12월 2일, 조택범, 「아시아태평양 『중점외교』에 비긴 흥겨」.

**** 『근로자』 2017년 12월호에서 전략적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있었다. 소련은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하였고, 김정일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커 가고 있었던 시기기도 했다. 그래서 김정일의 북한은 미국과 동맹에 준하는 관계 혹은 수교 이상의 관계를 모색하려 노력을 기울였다. 그 수단이 바로 핵무기 보유였다. 핵무기 보유를 통한 대미 협상과 북미 수교라는 전략이 동북아 전략의 핵심이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북한은 미국의 독점적인 글로벌 헤게모니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글로벌 강대국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존재에 주의를 집중하였다. 중국은 2010년에 GDP 총량에서 일본을 넘어섰고, 구매력을 감안한 중국의 경제총량PPP은 2014년부터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 국가로 굴기하였다.* 두 개의 초강대국이 김정은 체제의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미국을 위주로 수립된 동북아 전략이었다면, 북한에게는 매우 전통적이고 향수 어린 ‘등거리외교’가 김정은 체제에서 다시 소환되었다. 이른바 양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새로이 호명되었다. 그리하여 대미 관계 정상화가 김정일 체제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요구되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 복원에 멈추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남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다.**

* 하중대, 「중국 개혁개방 40년 시리즈 (上)」, 『신동아』 2018년 8월.

** 중국과 소련이 존재했던 냉전 시기의 북한의 대중, 대소 등거리외교와 마찬가지로, 2019년 현재 김정은 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등거리외교에 전략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굳이 “남한 모델”이라고 명명한 것은 현재 남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

애초에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자주,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움직였지만(플랜A), 북미 수교는 현실에서 수차례 좌초되었다. 이후 핵 개발과 핵무장을 통해서 북한 자신의 힘으로 강성대국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플랜B) 이 또한 실패하였다. 이후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전면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구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가동한 이 계획을 김정은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문제야말로 미국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가능케 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협상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지루하게 시간을 끄는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과 원하는 관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북미 동맹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도 북한 쪽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북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은 아니어도 군사적인 협력 관계는 맺을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 대미 액션 플랜과 전술

2019년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수교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액션 플랜으로 삼은 듯하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역량의

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 김일성 시기부터 이러한 구도를 자신의 미래로 삼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 〈러시아의 北 핵보유 용인 가능성 중국보다 커〉… 장렌구이, 《뉴시스》2016년 5월 13일.

** 2012년 3월 7~9일 미국에서 열린 한반도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 리용호는 갑작스럽게 “북미 동맹”을 언급한 바 있다.

*** 「문정인 “북, 정상회담 때 미국에 군사협력 제안할 수도”」, 『경향신문』 2019년 2월 15일.

일부 혹은 부분으로 미국과 거래하는 것이다. 중국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적당한 비핵화’ 상태에서 미국과의 수교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안보 문제(체제 유지와 안전)와 지속적인 경제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고 약속하였다.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대미 전략을 토로한 바가 있다. 2019년 2월 15일, “지난날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던 나라라고 하여도 오늘날에 와서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고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결심이 서 있다면 함께 손잡고 새 역사를 써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 역시 2019년 2월 15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격변하는 오늘의 시대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한 목표도 다르게 설명된다. 조선로동당 간부의 발언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이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미국의 행동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이며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만을 수용할 수는 없다. 결코 제2의 리비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을)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이 전쟁을 일

* 『로동신문』 2019년 2월 15일.

**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조(북)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2019년 2월 15일.

*** 『現代 ビジネス』, 2019년 2월 12일.

으키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강력한 힘의 균형을 이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 전쟁과 대결, 불신과 오해의 악순환을 일거에 깃부셔버린 평화의 보검”^{*}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동북아 전략에서 ‘핵’은 핵심적인 것이다. 북한에게 핵 문제에서 마지노선은 영변(과 혹은 플러스 알파로 존재하는) 핵실험장을 폐쇄할 수 있으며 각종 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조와 발사 시설을 해체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사찰 받을 수 있지만 핵무기 제조 능력은 잔존시켜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사실상은 ‘가역적인 비핵화’인 셈이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 지대화’다.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핵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은 물론이고 핵 사용권을 가진 주한 미군의 철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요구하는 바가 상당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2016년 7월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지역 미국 핵무기와 기지 철폐, 미국의 핵 타격 수단의 반입 금지, 핵무기 위협 및 사용 금지, 남한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 선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런 뒤에,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면서 “군사 위협 해

* 『로동신문』, 2019년 2월 13일.

** 「[배명복의 사람속으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미 ‘영변핵 동결’ 스물일 댄 역풍…비핵화 로드맵 나와야」, 『중앙SUNDAY』 2019년 2월 23일.

소”와 “체제 안전 보장” 두 가지 상응 조치를 내걸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만의 비핵화로 보는 데 반대하는 논의를 실었다. 즉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서는 비핵화 상응 조치로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불용, 외부로부터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 중지를 언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에게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비가시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실증할 수는 없지만,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은 2019년 1월 19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에게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5. 북한의 ‘새로운 길’ 과 3차 회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판단에 따라 결렬되자 북한은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이라는 전략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법의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의 비핵화 해법이 마치 북한을 ‘피고’로 하여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는 방

* 『조선중앙통신』 2018년 12월 20일.

** 조성렬, 「왜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인가」, 『내일신문』 2019년 2월 12일.

식이려면, 이 ‘새로운 길’은 동북아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으로 프레임
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복원하
고 북-중-러 간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가로서 이러한 해법을 국제
사회와 미국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실어서 강제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고 보는 것이다. 거기에는 각종 대북 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또
한 북-중-러 구조에 미국이 들어오도록 하여 동북아의 핵보유국끼리
핵군축 회담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핵보유국이
아니므로 자연적으로 그러한 구조에서 탈락하게 되고 북-중-러와 미
국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미국은 결코 받지 않을 께다.

북한이 이 ‘새로운 길’에 실제로 진입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지닌
역량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이 갖고 있는 글로벌 헤게모니
와 유럽 제국들과 그들 집합체인 유럽연합, 인도 등의 신흥 강국들이
북한의 꿈수가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다. 오히
려 면역 체계가 망가진 북한이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따
라서 현재로선 북한의 새로운 길은 선언 그 자체가 게임의 효과를 갖
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길은 ‘베트남으로 가는 길’과 궤도
가 다르기 때문에 2020년으로 비전이 맞추어져 있는 트럼프에게는 매
우 곤혹스런 길이다. 이것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부르는 구조로 기능
할 수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보여 주
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은 2차 정상회담의 준비 과
정과는 달리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대